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December 2022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2021 년 MAP 통계

2022 년 11 월 22 일, OECD 는 127 개 국가에 대한 최신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또는 “상호합의절차”) 통계를 발표하였음.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MAP 체결 사례 증가:** 2020년 대비 2021년에 체결된 MAP 처리 건수는 약 13% 증가함. 이전가격 MAP 처리 건수는 22%, 그 외 MAP 처리 건수는 7%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CA(권한 있는 당국)미팅 확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건의 우선적인 처리와 여러 MAP건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슈의 일괄적인 해결에 기인함.
- **신규 건수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에 신청된 MAP 건수는 약 3% 감소함. 이전가격 관련 MAP 건수는 약 10.5% 감소한 반면 그 외 MAP 건수는 약 4% 증가함.
- **MAP 통한 긍정적 결과 도출:** 2021년에 체결된 MAP 처리 건수 중 약 75%는 이전가격 및 기타 세목 과세분에 대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함. 전체 MAP 사례 중 약 2%는 합의없이 종결됨.(2020년 경우 3%가 합의없이 종결)

- **소요기간:** 2021년 체결된 MAP의 경우 이전가격 관련 사례는 평균적으로 약 32개월(2020년 35개월), 그 외 사례는 약 21개월(2020년 18.5개월) 소요되었음. 일부 과세당국의 경우 COVID-19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소통 불가하여 지연 발생함.
- **미팅 방식:** 과세당국들은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대면미팅과 별도로 비대면 미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MAP 진행이 가능하였음. 이와 같은 대면 및 비대면 미팅의 병행 방식은 MAP 소요기간 축소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식임
- **한국:** 2022년 10월까지누적 MAP 190건과 APA 240건을 체결하였음.

독일: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시행 법안 초안 발표 및 Pillar Two 도입 관련 업데이트

2022년 9월 30일 독일 정부는 EU 국가별 보고서 지침과 관련된 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EU 지침에 따라 2023년 6월 22일까지 해당 법안을 현지 법령으로 도입하여야 함.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독일에 소재하고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 연속 각각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로 납세 관련 특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상기 보고의무은 본사가 EU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그룹의 독일 소재 자회사 중 중견 또는 대기업에 해당하거나 보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됨. 한편, 그룹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Pillar Two 도입 관련 업데이트]

2022년 10월 17일 독일 정부는 Pillar Two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된 의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업데이트 사항 회신:

- 독일 정부는 현재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을 준비 중
- 법안 초안은 EU의 다국적 그룹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관한 이사회 지침의 최신 절충안을 따를 것
- 독일 정부는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검토 중
-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CFC) 대상으로 적용 중인 최저 세율(25%)을 재평가할 예정



02 관세

(대법원 판례) 구매계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는 물량에 대한 관세평가

[구매계약에 따른 추가 공급수량은 '무상'물품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77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무상물품에 대한 판단은 명목이 아닌 그 실질에 기초해야함을 확인한 사례

사실관계

- 제약사 H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차년도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한 계약에 따라서 의약품 S를 수입함
- 제약사 H는 추가로 지급받은 무료샘플을 유상 수입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수입신고 하였음
- 관세청은 해당 '무료샘플'은 무상수입되어 관세법 제30조 1항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과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 수입단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처분함
- 제약사 H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함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구매계약으로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총 구매수량과 지급액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이고,

비록 명목상 '무료샘플'로 공급되더라도 그 실질은 대가없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관세청과 원심의 판단은 무상성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

[KPMG 의견]

본 판례는 명목상 '무상'물품이라도 그 실질이 유상구매와 같다면 무조건 적으로 그 거래가격을 부인 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있음

계약에 따라 구매한 금액 또는 수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수량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총 금액을 총 수량으로 안분한 단가가

적정한 과세가격이 될 것이며 무상물품 과세가격 판단 시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